

‘파티 피플’ 장흥서 물 만나네

27일~8월 4일 정남진 물축제

워터락폴파티에 멀티미디어쇼 접목
미디어 영상 ‘글로벌 워터월드’ 첫 선
윤도현밴드 등 출연 ‘락 페스티벌’도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오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열린다.

‘ALL 水 좋다-신나는 장흥 물축제’란 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올해 물축제는 보다 젊어진 축제, 글로벌한 축제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기존 축제의 틀을 과감히 버리고 참여자들이 직접 물에서 즐기는 ‘집어형 축제’에 맞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 물축제는 기존 워터락폴파티에 멀티미디어쇼를 접목한 ‘글로벌 워터월드’를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폴파티장 양쪽을 막아 물입형 공간을 만들고, 화려한 미디어 영상쇼와 함께 폴파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워터월드는 밤까지 이어지는 물축제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수준급 폴파티지만 입장료가 없고, 유명 DJ들이 라인업을 구성한 것이 인기 비결이다. 관광객들은 무대 위의 쏟아지는 물을 맞으며 댄스 음

악에 맞춰 자유롭게 파티를 즐길 수 있다. 올해는 유진스님, 주주, 푸른, 우리, 뮤즈, 배기 등 유명 DJ가 물축제의 시원한 여름밤 속으로 안내한다. 지난해 3차례에 그쳤던 폴파티는 올해부터 오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모두 7번, 오후 9시에 펼쳐진다.

오는 31일과 8월 1일 오후 4시에는 국내 정상급 락스타와 함께하는 ‘장흥락페스티벌’이 열린다. 락페스티벌에는 윤도현밴드, 국카스텐, 내귀에도 청장치, 크라이닉, 캐치더영, 맥거핀, 트랜스픽션, 스킵잭 등 정상급 락스타가 출연한다. 7월 27일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하는 물축제 개막 축하공연은 트리플에스, 포레텔라, 기리보이, 키드밀리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이번 물축제는 태국 송크란 축제와 손잡고 글로벌 축제로 첫발을 내딛는다. 물축제 개막식에는 태국 공연단이 참여한다.

장흥군이 지역 대표축제 물축제를 내세우게 된 배경은 풍부하고 깨끗한 수자원 덕분이다. 9개 시군에 식수를 제공하는 장흥댐, 장흥읍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1급수 탐진강, 정정해역 특랑만 바다가 모두 장흥군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수자원이다. 물축제는 장흥의 물을 주제로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체험을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축제다.

물축제의 백미는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와 지

상 최대의 물싸움이다.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는 관광객과 지역민이 한 데 어울려 물싸움을 벌이며 거리를 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축제 첫날인 27일 오후에 시작되는 퍼레이드에서는 시원한 물줄기와 물폭탄이 쏟아지고, 관광객과 지역민은 함께 어우러져 신나는 물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지상최대 물싸움장에는 매일 오후 2시 신나는 음악과 함께 박진감 넘치는 물싸움을 진행한다.

매일 오후 3시에는 황금물고기 잡기가 열린다. 물속에서 빠르게 헤엄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펼쳐지는 관광객들의 치열한 추격전이 볼 만하다. 체험 후 잡은 물고기를 손질 해 포장해 갈 수 있다.

물축제는 직접 수익사업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 모아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추고 운영된다.

실제 물축제 기간 동안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 마트와 시장 등의 매출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다. 이런 분위기는 물축제가 끝나고 여름휴가가



↑ 지난해 열린 ‘정남진 장흥 물축제’ 참가자들이 행사를 즐기고 있다.

(장흥군 제공)

간에도 계속 이어진다. 장흥군이 강, 바다, 호수를 두루 갖춘 물의 고장임을 대내외에 선포하며 얻게 되는 군 브랜드 이미지 상승효과도 크다.

김성 장흥군수는 “물축제가 특별한 이유는 관광객과 지역민 모두가 주인공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라며, “오는 7월 27일부터 9일간 열리는 물축제에서 기승 띄는 행복찬 추억,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인기 폭발 ‘나주 배주스’ 호주 판로 확대



윤병태(왼쪽 세번째) 나주시장이 나주 배주스 호주 수출 현지 업체인 ‘배주스’ 도수민 대표 등과 함께 나주 배주스 수출 확대를 다짐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윤병태 시장, 현지 업체와 논의

나주시가 나주 배주스 호주 수출 현지 업체인 ‘배주스’(BAE JUICE) 도수민 대표를 만나 수출 협약 체결 이후 해외판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면담에는 윤병태 시장과 배주스 대표, 나주시조항공동사업법인, 배원에유통과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윤병태 시장은 지난 5월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배주스 도수민 대표와 “300만불 수출 업무 협약

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날 면담은 협약체결 이후 해외판로 확대와 나주 배주스가 소득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주 멜버른에 본사를 둔 배주스는 100% 나주 배를 원료로 지난 2018년부터 배주스를 수출하고 있다. 나주배는 건강과 숙취해소 등에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아 현지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배주스는 현재 호주 전역 980곳에 있는 대형마트 ‘울웰스’를 비롯해 주류 판매 업체(덴퍼피, BWS)와 미국 트레이더조에 입점해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숲 속 물놀이장에서 무더위 훌훌~



강진읍 V랜드·도암면 석문공원 물놀이장 등이 오는 8월18일까지 운영된다. 사진은 칠량면에 있는 초당림 물놀이장. (강진군 제공)

내일부터 강진 V랜드·칠량 초당림 도암면 석문공원 등 물놀이장 개장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휴가철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전남 강진군 강진읍 V랜드, 칠량면 초당림, 도암면 석문공원 물놀이장 등이 일제히 개장한다.

국립공원 월출산 경포대 계곡 일부도 지난 5일부터 한시적으로 문을 열었다. V랜드에는 물놀이장 방수막 포장, 워터슬라이드 정비, 온수 보일러

설치, 야외 평상 및 테이블 등이 설치됐다.

석문공원은 그늘막과 야외 평상을 추가했다.

칠량면 초당림은 4만5000그루의 편백 숲이 제공하는 맑은 공기와 산책길이 피톤치드의 상쾌함을 제공하는 등 개장 만점 3곳 3색의 물놀이장이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군은 물놀이장 개장 당일인 20일 개장 이벤트로 물놀이장마다 선착순 100명씩 총 300명에게 스마트폰 방수팩과 비치물을 증정한다.

군 관계자는 18일 “물놀이 안전 수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이상의 합평군수 급여 전액 장학금 기탁

올 상반기 4817만 원

이상의 합평군수가 합평군 인재양성기금에 2024년 상반기 급여 전액을 기부했다.

이번 이상의 군수가 기탁한 금액은 4817만 원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급여 실수령 총액이다. 이 군수는 군수 후보 시절 급여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한 약속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이 군수의 기부는 지역사회에 잔잔한 반향을 일으켜 군수 재임 이전보다 장학금 기탁 금액이 328%가 증가, 2023년 한해에만 3억 2500여만 원의 기부금이 합평군 인재양성기금으로 기탁됐다.

당초 합평군은 2030년까지 인재양성기금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군민과 출향 향우 등 기부 행렬에 힘입어 1년 내 목표의 조기 달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상의 합평군수는 “합평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며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부에 많은 이들이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